

한국에 있어서의 바우하우스조형교육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Introduction Process of the Bauhaus Formative Art Education in Korea  
-1930년대 조선총독부 산하에 있어서 소학교의 교육시스템과의 관계에 관하여

손 영범 (Son, Young Bum)

코베예술 공과대학 예술공학전공 박사과정

백 금남 (Baik, Kum Nam)

성균관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1. 서론

- 1-1 논문의 목적과 방법
- 1-2 도입경로에 관한 현재의 연구상태

2. 조선총독부의 교육행정조직에 관하여

3. 소학교 교육에 있어서 「도화과 지도세목」의 기능

4. 현존하고 있는 「도화과 지도세목」과 거기에 따른 방침서 내용

5. 「구성교육」에 관한 기술

6. 결론

참고문헌

(要約)

본 연구는, 일본을 경유로 한 한국의 바우하우스(Bauhaus) 조형교육방법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1945년 이후에 바우하우스의 교육방법이 독일에서 미국을 경유로 한 도입경로와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등으로의 한국 유학생을 경유로 한 도입경로는 규명되었으나, 이러한 도입은 주로 당시의 대학 교육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과 달리, 그 이전에 바우하우스의 영향의 가능성을 지적한 이는 박휘락이다. 저서 「한국디자인사」(1998)에 있어서 박은, 1938년 대구 사범학교 부속 소학교의 커리큘럼이 일본의 카와키타 렌시치로(川喜田煉七郎)의 「구성교육」이념의 영향을 받았다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바우하우스 교육방법의 도입은, 카와키타를 비롯한 소학교 교사들에 의해 민간에 있어서 자주적으로 추진된 경로이나, 이 일본을 경유한 한국의 도입 가능성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례의 「행정주도」에 의한 도입형태에 관한 것이다.

실제 어떤 방법으로 행하여 졌는가? 또는 어떠한 도입형태가 가능하였는가? 에 관해 해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현존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발행한 자료의 조사, 교육령 등의 조선총독부 자료의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박휘락이 지적한 1938년보다 1년 빠른 1937년에 「구성교육(構成教育:일본의 바우하우스 조형교육)」의 도입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1939년 이후에도 두 권의 문헌을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 또한 「구성교육」의 「슈판농」·「콤포지치온」·「감각(역학적 감각)」등을 다루고 있다.

결론으로써, 1930년대의 소학교의 도화교육방법을 기술한 「도화지도세목」 및 「지침서」 총 5권이, 용어와 교육내용에 있어서 「바우하우스의 구성교육」과 일치하였다. 더욱이, 조선의 「구성교육」이 조선총독부의 관리하에서 실행되었다는 것을, 당시의 사범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조직을 기술한 문헌에 의해 규명시켰다.

(Abstract)

This study is mainly based on the introduction process of formative art education method of Korean Bauhaus which was brought in this country through Japan.

The introduction routes into Korea of Bauhaus education method by way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Germany have been disclosed since 1945, including Korean students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Scandinavian countries.

Those introduction of Bauhaus method by Korean students into Korea had influenced the domestic university education.

However, it was worth notice that Park Hui-rak pointed out through his writing that Bauhaus education method had already existed in the country before 1945 when Korea was liberated from 35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

Park hinted in his book of "Korean Design History,1998" that the curriculum of primary school, then affiliated with Taegu Education College had been possibly influenced from "Composition Education" ideology led by Japanese Kawakita Rensichiro.

In Japan, Bauhaus education method had been independently introduced by civilians like primary school teachers of Kawakita.

However,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the informative art education in the country by way of Japan leaves a lot of things to be considered. Because, the introduction was carried out by Choson governor-General which took charge of colonial rule of Korea.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full explanation on the introduction of formative art education and on the types.

For that purpose, examinations on various materials and information released by many educational institutes as well as by Choson Governor-General were included.

As the result, it was possible to find out a trace of "Composition Education : Japanese Bauhaus Formative Art Education" in 1937, one year earlier pointed out.

And it was remarkable that two interested books were found out, which mainly dealt with Spannung of Composition and Dynamic sense.

Finally, through examinations in many aspects, five drawing education books written in 1930s, such as Drawing Guide Details and indication, were proved to be equal to Bauhaus Composition Education in terms of terminology and contents.

Moreover, it has been made clear that Composition education Choson was made mostly unde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Choson Governor-General in the of books on education systems in then education college.

(Keyword)

Bauhaus, Formative Art Education, Choson Governor-General, Gestalling, Spannung, Komposition.

## 1. 서론

### 1-1 논문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일본을 경유로 한 한국에서 바우하우스의 도입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이다.

바우하우스의 교육방법이 독일에서 미국 또는 스칸디나비아를 경유로 한국이 도입한 프로세스에 관한 사실은, 기존의 연구에서 대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논문으로써 논하지 않은, 일본을 경유로 한 도입 프로세스를 명확히 밝히는데 있다.

일본을 경유로한 바우하우스의 영향의 가능성을 지적한 것은 박휘락의 저서 『한국미술교육사』(1998)이다.

그 저서에는 1938년에 대구사범학교 부속소학교가 발행한 『도화지도세목(현재의 미술교육 커리큘럼안에 해당하는 문서)』와 거기에 따른 방침서인 『도공교육』이 일본의 카와키타렌시치로(川喜田煉七郎)와 다케이카쓰오(武井勝雄)의 공저 『구성교육대계』(1934)의 내용을 인용하고, 소학교 교육이 일본의 『구성교육』이념의 영향을 받았다 라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1938년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 도입 경로가 시사하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감독 하에서 이러한 선진적 교육방법이 소학교 교육에 실천되었다 라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왜? 어떻게? 이러한 교육이 행하여 졌는가? 그 상세한 내용은 불분명하다.

당시의 소학교 교육에 관한 자료는 거의 전부가 조선총독부의 일본화 정책에 의해 일본어로 기술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내에 산재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정리하고, 도입의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1-2 도입경로에 관한 현재의 연구 상태.

한국에 있어서 바우하우스 교육의 도입경로에 관한 연구는 현재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최경숙의 「디자인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우리나라중학교 중심)」(1974)이다. 최경숙의 논리는, 독일→미국→한국이라는 미국경유에 의한 도입설이다. 즉, 1920년대의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과 1934년의 「뉴 바우하우스」가 융합하여 1945년도 이후에 한국으로 유입되었다고 한다.<sup>1)</sup>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이후 1949년 12월 31일 교육의 이념·목적·행정체제·교육기간의 종류와 계통에 대해서 규정한 교육법이 공포, 1952년부터 교육과정 개정에 착수, 1954년 4월에는 각급 학교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의 문교부령 제35호를 공포, 1955년 8월 1일에 정부수립 후 최초로 자주적인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45호가 공포되어 1956년에 시행되었다.

하지만,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군사혁명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운 문교정책의 이념이 요구되었다. 그것이 1963년 2월 15일의 「신교육과정」의 공포이다.

즉, 1950년부터 1963년까지의 한국교육은 미국의 영향에 의하

여 크게 좌우되어, 미술교육에 있어서도 미국의 「바우하우스 조형교육을 내포한 진보주의 교육」이 도입되었다고 최경숙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태평양전쟁 이전의 일제 식민지시대의 교육을 단순한 모방·사생화·기억화 그리고 수공 공작에 그쳤다고 최경숙은 주장하고 있다.<sup>2)</sup>

또 하나의 경로의 설은,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광춘근에 의한 논문 「바우하우스가 한국의 디자인 교육에 끼친 영향(대학의 디자인 교육을 중심으로)」(1988)과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정연아에 의한 논문 「바우하우스가 한국의 미술대학 디자인과의 교육제도에 끼친 영향」(1992)에서 보여지는 도입경로설이다.

여기에서, 유강렬(1958년 미국의 재단의 초청으로 뉴욕대학교 그래픽 아트 센터에서 수학, 스칸디나비아 3국과 유럽의 디자인교육의 정보를 수집 후 혁신적인 디자인 교육을 실시), 권순형(1960년 미국 크리블랜드대학에서 1년간 수학), 김정자(1956년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수학), 민철홍(1960년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수학) 등을 비롯한 교수들에 의한 도입 루트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sup>

예를 들어, 유강렬 교수는 「홍대<공예과>의 교과과정을 기초과정과 전공과정으로 분류하여 1, 2학년까지는 구성, 소묘, 판화, 해부학, 색채학 등을 이수하게 하고, 3학년부터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도안(현재의 시각디자인), 염색공예, 도자기공예, 금속공예를 이수하게 했다. 특히 금속, 요업, 섬유재료학 등은 화공계 교수에 의해 지도되었다. 이렇듯 재료학에 대한 비중이나 전공과목에 전문 기능인을 두어 교수의 수업을 보조하도록 편한 점은 공방(工房) 작업에 기초를 둔 조형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창조적 전개를 유도한 바우하우스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그리고 <공예관>을 신설하여 도자기, 목칠, 금속공예 등의 제반 실습시설을 갖추어 학교 내에서의 작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금속공예의 경우에는 조각가 김정숙 교수가 실습을 담당했다. 이것은 바우하우스의 교육 이념에서 강조한 제조형 분야의 종합적 실현이라는 과제에 부합되는 것」<sup>4)</sup>으로 예를 들었다.

하지만, 광춘근은 이전의 1910년에서 1945년까지의 일제 식민지 시대의 도화교육을 「모든 교육 정책은 일제 식민지 정책으로 일관되었으며 미술교육 대부분이 일본인들의 단순한 교과서 모방, 사생화, 기억화와 수공 공작 등이 학습 내용의 전부였다」<sup>5)</sup>라고 일본에 의한 바우하우스 조형교육의 도입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상기의 어느 쪽의 도입 경로설에 있어서 한국의 도입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이후의 도입이며, 제3국을 통한 바우하우스 조형교육 도입의 존재를 밝힌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과 달리, 그 이전의 식민지 시대에

2) 최경숙, 앞의 논문, pp.10~33.

3) 광춘근 "바우하우스가 한국디자인교육에 끼친 영향(대학의 디자인교육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p. 48~49., 정연아 "바우하우스가 한국의 미술대학디자인과의 교육제도에 끼친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p.44~48.

4) 광춘근, 앞의 논문, p.48.

5) 광춘근, 앞의 논문, p.48.

1) 최경숙, "디자인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우리 나라 중학교 중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pp.10~33.

있어서 바우하우스 조형교육의 존재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이는 박휘락이다.

박휘락은 저서 『한국미술교육사』(1998) 중에서, 1938년에 대구 사범학교의 부속 소학교의 『도화과 지도세목』과 『도공교육』의 내용이 일본에서 간행된 카와키타 렌시치로와 다케이 카즈오의 저서 『구성교육대계』로부터 많은 인용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구성교육의 이념과 방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대학교육에서의 도입과 별도로, 소학교를 대상으로 한 「구성교육」이 실시되었다는 것이 되며, 또한 한국이 처음으로 바우하우스의 조형교육이 도입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 식민지 시대의 1938년에 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제2차 세계 대전 전의 도입의 가능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 할 점은, 그것이 당시 식민지 정부였던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과, 이때 적이라고 말할만한 「행정주도」에 의해 도입형태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카와키타 렌시치로의 「구성교육」이 바우하우스의 이념과 교육방법의 계승에 관한 논문인, 우메미야 히로미쓰(梅宮弘光, 현 코베대학교 교수)의 건축공학 박사학위 논문인 「카와키타 렌시치로와 근대건축운동에 관한 연구(川喜田煉七郎と建築運動に關する研究)」, 오가 유키오(大賀行雄, 일본대학 건축학석사)와 오우미 사카에(近江榮, 전 일본대학 교수, 건축공학박사)의 공동학술 강연회 논문 「카와키타 렌시치로의 건축 활동에서 보여지는 바우하우스의 이념의 계승(川喜田煉七郎と建築運動に見るバウハウス理念の繼承)」, 오가 유키오의 「카와키타 렌시치로의 연구 - 그의 건축사상에서의 [근대] : (川喜田煉七郎の研究-その建築思想に見る[近代])」 등의 연구 논문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도입은 개인 또는 민간의 조직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받아들였다.

카와키타 렌시치로는 「구성교육」을 민간의 「신건축 공예학원」(그림 1)의 조직과, 잡지 『건축공예 아이시울』(그림 2) 등의 미디어를 통해 전파시켰으며, 그 영향하에 있었던 타케이 카즈오, 마토고로 하루를 비롯한 당시의 소학교의 선생들이 자주적으로 이러한 「구성교육」의 방법을 수용하였다라는 프로세스가 일본에 있어서의 일반론이다.



그림 1. 신건축공예학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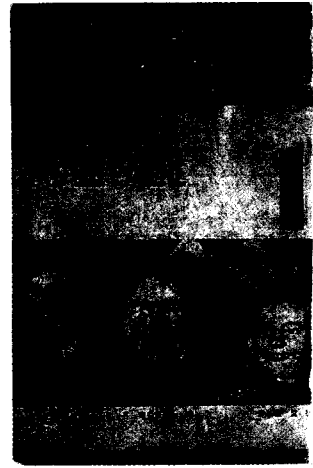


그림 2. 건축공예 아이시울의 창간호 표지

한편 조선에 있어서는, 도입에 관계하고 있는 교원들이 일본 내의 교원들과 같은 일본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당시 조선에 있어서 모든 권한이 조선총독부에 집약되어, 어떠한 교육방법이 도입된다고 할지라도 조선총독부의 내부를 통하지 않고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다.

당시 「시학」 제도에 의해 모든 조선 내의 학교는 조선총독부의 일원적 감리·감독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바꾸어서 말하면, 조선총독부가 「구성교육」을 인정하였고, 더욱이 조선총독부 감리·감독에 의해 실시하였다는 것이 된다. 왜, 이러한 일본과 다른 도입형태가 가능하였는가 라는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도입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논자는 우선 박휘락 교수와의 인터뷰와 한국 내의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을 비롯한 독립 이전의 조선 식민지 시대의 문헌(1932년~1945년)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에 있어서 문헌조사를 하고, 현존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정리, 조선총독부에 있어서의 교육행정기구의 해명, 그리고 소학교로의 도입근거라 할 수 있는 『도화과 지도세목』을 분석하였다.

## 2. 조선총독부의 교육행정조직에 관하여

당시 조선에 있어서 교육행정의 중앙최고기관은 말할 것도 없이 조선총독부이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있어서 최고 행정관청으로서, 외교와 군정 등의 일본 정부에 있어서 통일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 부분을 뺀, 조선 통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일본 본국의 각 기관 장관(일본에는 大臣이라 함)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또한 조선에 있어서는 조선총독부가 총괄하였다. 즉, 조선총독부는 일본 본국의 관여를 받는 입장에 있어도, 본국의 행정기관과 다른 행정 또한 자주적으로 행할 수 있었다.

조선 총독의 보조기관으로서 정무총감이 있다. 정무총감직은 조선총독부 관계 제8조(총독을 보좌하고 총독부의 업무를 총괄정리하여 각 부국의 사무를 감독함)에 의해 결정되었다.

6) 岡久雄, “朝鮮教育行政”(京城 :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그 밑으로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주업무로서 보조하는 학무국장(조선총독부 관계 제12조 : 국의 장은 총독 및 정부 총독의 명령에 의해 국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부하 직원을 지휘·감독함)이 있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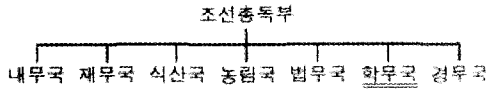


표 1. 조선총독부의 7개국

그 외의 사무관으로서의 사무관, 이사관, 교학관, 시학관(視學官), 편수관(編修官) 및 편수서기(編修書記)가 있다.

학무국은 1915년 8월 총독부 훈령 제26호 「조선총독부사무분당규정[초](朝鮮總督府事務分當規定[抄])의 제10조(학무국에 학무과, 사회교육과 및 편집과를 둠)에 의해 「학무과」, 「사회교육과」, 「편집과」로 업무가 분리되어, 상관의 명령·지휘를 받아서 각각의 직분에 따라 총독을 보조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여기에 학무과, 사회교육과, 편집과의 행정 업무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규정되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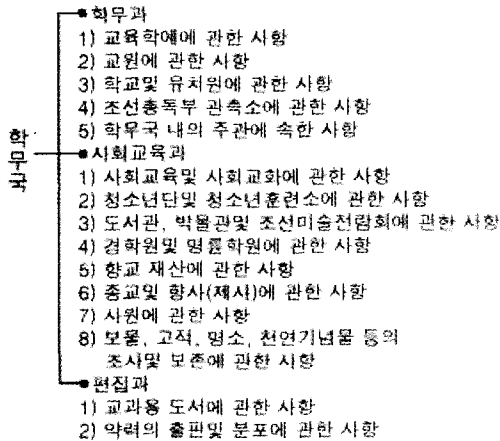


표 2. 학무국 내의 업무 조직

그리고 교육행정의 지방관청으로서, 각 도지사가 존재하고 있다. 그의 보조기관으로서 내무부장, 도학부장(道學務長), 도시학관(道視學官) 및 도시학(道視學)이 있다. 이 교육행정상에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시학기관」이다. 「시학」이란, 교육기관의 관리 감독의 의미이다. 「시학기관」 중에 주요 업무를 관장하는 이는 시학관과 교학관이다. 시학관과 교학관의 업무내용은 동일하나, 시학관은 전문학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교학관의 경우는 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이점이다. 이러한 조선총독부 산하의 「시학기관」의 조직 중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은 시학관이었다. 이러한 조직상에 위치한 시학관은, 총독부 내에 시학관으로서 4명, 각 도에 도시학관이 각각 1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도에는 더 많은 수명의 도시학을 배치하였으며, 주요부(현재 직할시에 해당하며, 실재 1940년까지는 경성, 대구, 부산, 평양의 4개

1940), p.6.  
7) 岡久雄, 앞의 책, p.7.  
8) 岡久雄, 앞의 책, p.8.

부(府)만이 존재했음)에 부시학관 1명을 두었다. 시학관은 학사에 관한 시찰 및 감리·감독이란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였다. 즉, 시학관은 교육에 있어서 우수한 자이면서도 교육 행정에 관한 학무에도 정통한 인재여야만 하였으므로, 조선총독부가 특별선임·임명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즉 시학관은 문관 임용령에 의한 채용 이외에, 조선총독부 시학관은 특별 임용령의 규정에 의해 「①文部省督學官, 문부성 시학관 또는 대만(타이완) 총독부 시학관의 직책에 있는 자, ②2년 이상 문부성 직할 제학교장 또는 조선총독부 전문 학교장의 직책에 있는 자, ③3년 이상의 사범학교장, 관·공립 중·고등 보통 학교장, 관·공립 고등여자보통학교장 및 관립실업학교장의 직책에 있는자, ④3년 이상의 주임 교관의 직책에 있는 자(1911년 칙령 제138호 조선 총독부 시학관 특별임용령)」 9)의 중에서 고등시험위원의 선택 고려를 거쳐 임용하여 왔다. 도시학관의 경우는 「①2년 이상의 주임관 또는 주임관 대우 이상의 학교장, 교관, 교원 및 교육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직책에 있는 자, ②5년 이상 반주임관 및 반임관 대우의 학교장, 교관, 교원 또는 교육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월 85원 이상의 봉급을 수령하는 자」 10)이다.

시학기관이 「학사에 관한 시찰」을 하는 경우, 적어도 조선총독부 시학관 및 조선총독부 시학위원 학사 시찰 규정(1928년, 총독부령 제29호) 제1조 규정에 의해 시찰 명령을 받지만, 1938년부터 조선총독부에 소속된 교학관과 시학기관은 더욱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된다.

교학관은 조선총독부 관계 제17조의 2에 「상관의 명령을 받아 교학의 쇄신진흥에 관한 조사 및 지도 감독의 권한을 받음」으로써 단순히 학교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에 관한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교학의 쇄신진흥」이란 교학관 시찰규정(1938년 총독부 훈령 제43호)에서 「이국(일본국)의 교학의 본의를 철저히 관계할 것」 11)이라 규정시켰다. 한편으로, 중요 학교장인 제국 대학장·관립전문학교장·사범학교장 및 실업학교장은, 경성제국대학교 총장 직무규정(1924년 총독부 훈령 제6호) 및 관립학교장 직무규정(1911년 총독부 훈령 제83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육행정상 특수 관청으로 인정 받았다. 즉 위의 학교장은 지방 도지사급의 행정위치가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소학교는 표 3과 같이, 4 종류의 계통에 의해 감리·감독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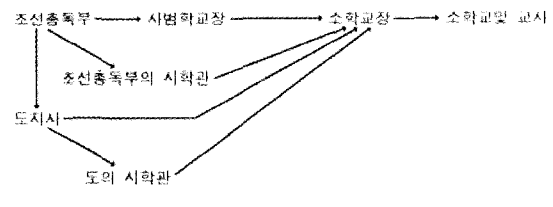


표 3. 조선총독부부터 소학교까지의 시학조직

하지만 박휘락이 근거로 하고 있는 대구사범학교 부속 소학교

9) 岡久雄, 앞의 책, pp.8~15.  
10) 岡久雄, 앞의 책, pp.8~15.  
11) 岡久雄, 앞의 책, pp.8~15.

는, 대구사범학교장이 특별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표 3의 ①의 계통에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고유명사를 넣어 기술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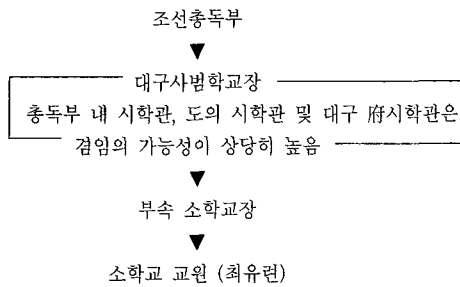


표 4. 대구사범학교 부속 소학교까지의 「시학」

즉, 이러한 특수 교육행정에 의해 모든 교육을 감리·감독을 받았다. 따라서 「구성교육」을 도입함에 있어서, 일본 내의 자주적 민간 차원에서 도입과정과 달리, 조선총독부의 「이례적인 행정 주도에 의한 도입 형태」라 할 수 있다.

### 3. 소학교 교육에 있어서 「도화와 지도세목」의 기능

전술의 박휘락 교수는 「구성교육」과 관련된 문헌인 「도화와 지도세목」과 「도공교육」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1938년 대구사범학교 부속 소학교의 최유련(崔有練)의 저서 「도화와 지도세목」과 「도공교육」이 카와키타 렌시치로와 타케이 카즈오 저서인 「구성교육대계(構成教育大系, 1934)」(그림 3)의 영향하에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구성교육대계」란, 당시 일본에 있어서도 큰 반향과 함께 「구성교육」의 방침을 소개한 서적이다. 최유련은 「도공교육」의 제3항인 「우리 학교의 도화교육(吾校의 圖畫教育)」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림 3. 구성교육대계

「우리들이 이후에 도화교육을 진전해 감에 반드시 연구하고, 또한 일고(一顧)를 들 수 있게 필요로 하는 것이 구성교육이다.(중략) 다시 말하자면 구성교육이란 것은 종래의 감정을 상당히 중시한 미술에 물든 묘사중심의 도화교육을 벗어나 형태의 색과 질에 대하여, 정확한 감각과 이해를 하는데 필요에 의하여 창작 구성하고 생활의 미적 통계를 하게 한다. 보다 체계적으로 지적영분을 넓혀서 조직적인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래의 행보가 막힌 도화교육을 타계하고, 미술적 또는 학교 사회생활에서 벗어난 도화교육을 생활로 환원시켜서

형태·색상·질감에 대하여 더욱 감각을 찾고 이해하여 생활을 윤택하고 풍요로운 내적 생활을 영위하는 황국신민을 육성하는데 있다.(생략)」<sup>12)</sup>라고 「구성교육」의 내용과 도입의 필연성을 기술하였다.

박휘락 교수는, 「데사우(Dessau)에 이전한 바우하우스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동경미술학교의 일원인 미쓰타니 타케히코(水谷武彦, 1898~1969)는 1930년 전국 중등학교 교원 도화(圖畫)강습회에서 바우하우스교육을 소개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젊은 건축가 가와키타 렌시치로(1902~1975)는 1932년에 「신건축예연구소(新建築工藝研究所)」를 개설하고 바우하우스식 교육을 직접 실천하였다. 이런 사실들에 많은 교사들이 공명하고 학교교육에 바우하우스식 교육을 도입하고 확산시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일본의 「구성교육」 운동이며, 보통교육에 도입한 이는 소학교(동경·나카타[長田]소학교)교사였던 타케이 카즈오(武井勝雄, 1898~1979)와 마토고루 하루(間所春, 1899~1964, 요코가와[横川]소학교 교사)였다. 이 교육 방법이 크게 몰두한 타케이는 가와키타와 공저로 「구성교육대계」를 출간한다.<sup>13)</sup>라고 「구성교육」과 바우하우스 조형교육을 관계를 검증하고, 상기와 같이 「구성교육」이 당시 조선의 도화교육에 영향을 미쳤고, 도입되었다고 그는 단정하고 있다.

대구사범학교 부속소학교는 통상 소학교가 사용하는 국공 교과서와 교사용 교과서만을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인 교수세목(커리큘럼안)을 개발·실시하였다. 이 교수세목에 「구성교육」의 내용이 다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휘락 교수는 또 하나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부속소학교가 구성교육의 이념과 방법을 도입하였다는 더 확실한 문헌적 근거는 「도화지도세목」을 운영하는 지침서로 여겨지는 「도공교육」의 제11장 제1절 제2항의 <아국 도화교육의 변천과 발달(我國圖畫教育의 變遷と發達)> 370~375쪽에 「구성교육에 의한 신 도화(構成教育による新圖畫)」의 <구성교육과 현대 도화교육(構成教育と現代圖畫教育)>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는 데서 찾을 수 있다.<sup>14)</sup>라고 문헌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구성교육에 의한 신 도화(1936)」는, 타케이 카즈오와 마토고루 하루의 공저로 「구성교육대계」(1934)이후에 제작된 소학교를 중심으로 한 「구성교육」 서적이다.

그리고 박휘락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구성교육」의 도입이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한 도화교육의 특징이라 주장하였다.

「조선교육령」이란, 조선에 있어서의 교육에 관한 기초법령이고, 종합교육령으로서 중요한 법령이기도 하다.

이 「조선교육령」은 1911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크게 네 번에 걸쳐서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제1차 조선교육령(1911년 8월 23일, 칙령 제223호)」은 「조선에 있어서 조선인의 교육」으로 규정하여, 교육에 대한 모든 교육연구를 금지시켰다.

그렇지만, 「제2차 조선교육령(1922년 2월 4일, 칙령 제19호)」에 있어서는 조선 내의 일본인과 조선인의 교육제도를 「조선교육령」에 통합·설정시켜 조선내의 일본인과 조선인이 법률

12) 崔有練, 圖工教育(大邱:大邱師範學校付屬小學校, 1938), pp.398-399.

13) 박휘락, 한국미술교육 100년사(서울:에경출판, 1998), p.276.

14) 박휘락, 앞의 책, p.277.

상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의 배경은, 『조선교육문제관견』의 페이지 97에 의하면 「하라(原) 총리의 담화 및 인사가, 당시로부터 대정 13·14년(1924·25년)까지, 내외 의식자들이 제국의 조선 통치정책에 관하여 열성적으로 <일본 본국 연장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에 다소 관계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sup>15)</sup>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사범교육 및 실업 보습교육을 뺀 각 교육은 거의 일본 본국에 대한 교육령에 의해 규정하고, 각 학교령 중 문부대사(한국에 있어서 문교부 장관)의 직무는 조선총독부가 이를 실행한다. 하지만 본국의 교육령의 어려운 사항에 있어서는 조선총독부가 결정할 사항을 따르며, 보통교육(소학교를 포함)은 조선의 특수 사정에 의해 조선총독부의 특례를 설치 규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조선의 지역적 특수성 또는 지방 단체의 실정에 있다. (중략) 오늘의 이러한 학제의 공포는 명치 44년(1911년)의 제도 이후 (중략) 거의 동등한 학제를 공포하여, 새로이 부합된 동포에 대한 동일 기준에 의해서 교육의 실행은 세계 각국에도 그 전례가 없다」<sup>16)</sup>라고 조선 교육의 특수성을 기술하고 있다.

1938년 3월 3일의 칙령 제95호의 「제3차 조선교육령」은 황국 충민과 신동아 건설(식민지개척정책)을 위한 「국체명징(國體明徵), 내선일체(內鮮一體), 인고단련(忍苦鍛鍊)의 삼대교육방침을 철저히 시켜 대국민으로써의 지조·신념의 연성을 기간하기 위하여 않으면 안 된다」<sup>17)</sup>라고 조선에 있어서 가혹한 교육령이 선포되었다.

『제3차 조선교육령』의 공포·실시의 배경에, 제6대 우가키 가쓰시게(宇垣一成) 총독의 「꽃보다 떡 정책(花より団子政策)」<sup>18)</sup>이 있다. 본질적으로는 「일본 본국 연장주의」이지만 조선 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즉, 노키에가키의 「꽃보다 떡 정책」은 「하라 총리의 담화와 인사」의 연장적 정책이지만, 말 그대로 실리를 취하자는 것에 있다.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책은, 단순한 자원, 노동 등을 착취하는 식민지 통치보다 조선인을 「제2의 일본국민」이라는 실리를 취하기 위해 교육에서부터 개혁을 진척시켰다. 그 교육 중에서도 우선으로 한 것은 소학교와 사범학교이다. 소학교의 중요성은 일반적·모범적인 일본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정신과 정조를 가르쳐, 그것을 전국으로 침투시키는 것에 있다. 그리고 소학교에 확산시키기 위해 사범학교의 양산과 기능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조선 풍토에 맞는 교육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의 풍토에 맞는 교육」이란, 일본 내의 교육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조선 실정에 맞는 교육으로 변환시킨 교육이다.<sup>19)</sup>

즉, 대구사범학교의 부속 소학교의 『도화과 지도세목』과 『도공교육』은 단순히 『구성교육에 의한 신도화』와 『구성

교육대계』를 복사한 것이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다.

조선의 사회와 교육의 환경 변화의 결과, 최유련과 같은 교사가 『도화과 지도세목』과 『도공교육』을 「제3차 조선교육령」을 기초로 작성되어졌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다음의 「제4차 조선교육령」(1943년)의 커다란 특징은,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하고, 미국과의 전쟁시기였기 때문에 「지도세목」은 현실적으로 문헌으로서 발행되지 못하였다.

#### 4. 현존하고 있는 「도화과 지도세목」과 거기에 따른 방침서의 내용

「지도세목」이란 「조선교육령」에 있어서는 「교수세목(教授細目)」이라 칭하고 있다. 타가하시 하마요시(高橋濱吉)의 저서 「조선학교 관리법(朝鮮學敎管理法)」에 의하면 「지도세목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의 실정, 아동심리의 발달과 학습편제 등을 고려하여 교재를 선택·배열하고 구체적·실제적인 예산안. (생략) 그러므로 지도세목의 제작은 학교장에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장은 지도세목에 의하여 각 학년의 교수 운영(수업지도)을 통일적으로 감독하고, 전체의 개관을 달성하는 편의를 얻을 수 있다」<sup>20)</sup>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지도세목」은 현재의 각 과목별 커리큘럼안에 해당한다. 그리고 「조선교육령」상에 처음으로 규정된 것은 1938년 3월 15일 총독부령 제24호 「소학교규정」의 제37조와 제72조의 1이다. 이것들의 조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제37조: 학교장은 그 학교에 있어서 교수해야만 하는 각 교과목의 교수세목을 정하여야 함」<sup>21)</sup> 더욱이, 「제72조의 1: 일지, 일과표, 교수세목, 학교 일람표, 교과용 도서 배당표, 학교건물의 도면, 그리고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sup>22)</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도세목」또 「교수세목」은 「조선교육령」에 의하면 「제3차 조선교육령」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수량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총독부령 제24호 「소학교규정」과 「조선교육문제관견(朝鮮教育問題管見)」의 「제학교일람(諸學校一覽)」<sup>23)</sup>을 대치·비교하면, 실제 1931년에 소학교를 포함한 보통학교가 1856개교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각 학교별로 「교수세목」을 제작하였다면 1938년 이후에 약1800권 이상이 존재해야만 한다. 하지만, 「교수세목」이 각 학교에 존재하였다고 할지라도 출판물로서 제작·발행된 흔적이 거의 없다. 즉 학교 내에서 각 교과목별로, 1시간 단위별로 적어야만 하는 커리큘럼안임으로 1시간에 1페이지인 경우 100시간에 100페이지가 된다. 그것을 각 교과목별로 출판한다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했다.<sup>24)</sup>

그리고 1938년 4월 15일에 일본총리의 자문기관으로써 내각에 「과학심의회」가 설치되었다. 원래 「과학심의회」는 전시하의 군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원료와 자원의 과학적 조사, 전시의 대응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1940년 7월 이후는 폐휴지의 회수와 재생 등의 자원관리의 일환으로써 사용을 한

15) 大野謙一, 朝鮮教育問題管見(京城 : 朝鮮總督府學務課·朝鮮教育會, 1936), p.35.  
16) 大野謙一, 앞의 책, p.97.  
17) 朝鮮總督府, 施政30年史(京城:朝鮮總督府, 1940), pp.780~781.  
18) 大野謙一, 앞의 책, pp.199~200.  
19) 大野謙一, 앞의 책, pp.233~242.

20) 高橋濱吉, 朝鮮學敎管理法(京城:日韓書房,1938), pp.29~30.  
21) 總督府學務局學務課, 朝鮮學事例規(全)(京城:朝鮮教育會,1938), p.323.  
22) 總督府學務局學務課, 앞의 책, p.329.  
23) 大野謙一, 앞의 책, p.185.  
24) 孫聆範, “韓國におけるパウハウス教育の導入プロセスに關する研究1”, 日本建築學會近畿支部研究報告集 42号·計畫系, 2002, p. 1055.

정시켰다.<sup>25)</sup> 즉 이와 같은 전향을 보았을 때, 사실상 「교수세목」이 출판 가능한 시기는 1938년에서 1940년까지의 2년간이라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세목」은 1년간의 각 시간별 커리큘럼안임으로 출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출판이 가능하였다고 할지라도 제작기획부터 시작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출판된 것은 매우 적은 수량이었고, 특수한 사정에 의해 출판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실제 이러한 소수의 문헌 중에 한국 내의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의 「교수세목」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제3차 조선교육령」 이전의 1934년에서 1935년까지 「조선초등교육연구회」가 출판한 「세목식 보통학교 교수일안(細目式普通學校教授日案)」의 3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초등교육연구회란, 당시 조선에 있어서 교육계의 중심적 위치에 있던 경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의 연구회이며, 조선총독부의 직속 산하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교수세목」의 발행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조선초등교육연구회」가 조선 내의 이러한 위치에서 볼 때 「세목식 보통학교

| 내용 | 지도세목  | 연도   |
|----|---|------|
| 1  | 「細目式普通學校各科教授日案(一學年)」, 朝鮮初等教育研究會編, 朝鮮公民教育會發行<br>「細目式普通學校各科教授日案(二學年)」, 朝鮮初等教育研究會編, 朝鮮公民教育會發行<br>「理論の統合經驗の結晶學校經營の實際」, 群山公立尋常等小學校                 | 1934 |
| 2  | 「細目式普通學校各科教授日案(三學年)」, 朝鮮初等教育研究會編, 朝鮮公民教育會發行<br>「各科教育の動向」, 釜山公立普通學校・編集者: 西川末吉<br>「各科教授要綱」, 京城第一公立高等普通學校<br>「本校の教育」, 光州公立高等女學校, 編集: 武田部太郎       | 1935 |
| 3  | 「本校教育に實際」, 全州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 1936 |
| 4  | 「教科經營」, 編輯兼發行者: 岩淵秀雄, 全羅北道教育會(全羅北道視學)<br>「各學科日教授方針」, 編集石川賴彦(全州公立高等普通學校), 全州公立高等普通學校<br>「各科教授の方針並學習指導綱領」, 田所三次郎編集, 清州公立高等普通學校                  | 1937 |
| 5  | 「圖工教育」, 崔有鍊, 大邱師範學校附屬小學校<br>「圖高科指導細目」, 崔有鍊, 大邱師範學校附屬小學校<br>「研究論文集2」, 杉原猛熊著, 慶尙南道學務課内の慶南教育會發行  | 1938 |
| 6  | 「新教育令による學校・學級・教材の經營」, 京城女子師範學校の朝鮮教育研究會, 朝鮮圖書出版<br>「新令教育の實踐」, 公州女子師範學校附屬小學校編代表八束周吉, 朝鮮圖書出版(株)<br>「生活指導の皇國國民教育學教學級經營の要諦」, 板東藤太郎著, 全州師範學校附屬小學校發行 | 1939 |
| 7  | 「內鮮共學を基調とせる學校經營の理論と實際」, 及川民次郎著(晉州公立高等女學校校長), 吉田<br>「朝鮮國民學校各科教授要義」, 光州女子師範學校の皇國教育研修會編  | 1941 |
| 8  | 「決戰體制下に於ける國民學校教育の實踐研究」, 編集代表山岸林三郎, 光州師範學校附屬國民學校   | 1942 |
| 9  | 「國民學校經營便覽」, 全南教育會   | 1943 |

표 5. 한국내의 현존하고 있는 「지도세목」과 그 방침서 교수일안」은 전국규모의 소학교를 포함한 보통학교의 기준으로써 존재하였다고 간주된다. 경성사범학교 이외에도 8도에

25) 牧野喜久男, 昭和史事典(東京:毎日新聞社, 1980), p.70.

26) 孫聆範, 앞의 책, p.1055.

각각의 사범학교가 설치되었으며, 최유련이 「도화과 지도세목」을 적은 전술의 대구사범학교 부속소학교는 그중의 부속 교였기 때문에 출판이 가능하였다.

또한, 「도화과 지도세목」에 대한 방침서는 학교경영과 수업의 운영방법을 기록한 것이나, 현시점에 있어서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1948년 이전의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에 약 20권의 존재를 확인하였다(표 5).

이러한 문헌 중에서 「구성교육」과 관련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문헌을 몇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박휘락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1938년보다 1년이 빠른 1937년에 「구성교육」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문헌과 1939년 이후에도 「구성교육」에 관하여 기술한 문헌이 다음과 같이 4권 있다.

### 5. 「구성교육」에 관한 기술

1938년 이전에 「구성교육」과 관련된 문헌으로는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가 발행한 「각 학과목 교수방침(1937)」과 「전라북도교육회」가 발행한 「교과연구(教科研究)(1937)」가 있다.

「각 학과목 교수방침(各學科目教授方針)」의 제1절에 도화교육 수업의 목적을 「도화는 물체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정확함과 동시에 자유롭게 그것을 그리는 능력을 갖추게하여 의장으로 짜내서 미적감성을 육성시키는 것에 요지를 두고 있다.<sup>27)</sup>라고 「고등보통학교 규정 제22호」에 준거하고 있다. 또한 「슈판능 연습」, 「콤포지치온 연습」, 「감각(역학적 감각)」 등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는데 「도화수공지도 세목의 방침」이 기술된 문헌이다.

여기에서 「슈판능(Spanning)」<sup>28)</sup>·「콤포지치온(Komposition)」·「감각(역학적 감각)」이란, 「구성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다. 예를 들면 카와키타는 「슈판능」을 「슈판능이란, 시각적으로 말하자면 형태와 형태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 더 자세히 말하자면 물체의 형태를 처음의 원형으로 환원시켜 볼 때 형태사이의 관계이다. 그림으로 말하자면 움직임에 해당하지만 거기에는 역학적인 힘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력·힘·움직임·방향성·긴장……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원어 그 자체로 사용함」<sup>29)</sup>이라고 언급·기술하고 있다.

카와키타의 언급을 달리 말하면 「게슈탈트(Gestaltung)의 심리를 조형교육으로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카와키타는 다수의 게슈탈트의 심리학저서를 참고(케라의 「게슈탈트 심리학」, 사쿠마 가나에(佐久間鼎)의 「게슈탈트의 문제와 해석」 등)하여, 「건축공예 아이 시 울」의 제3권 제8호에 「구성교육과 게슈탈트 심리학」을 논한 바 있다. 이러한 「슈판능」의 화면상 재구성성을 「콤포지치온」이라 한다. 그리고 「구성교육」에 있어서의 「감각」이란 오감을 말하며, 또한 음률에서 시각으로, 입체구성으로 감각의 전개를 일본 조형교육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조형교육이었다.

즉,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가 발행한 「각 학과목 교수방침」은,

27) 石川賴彦, 各學科目教授方針(全州:全州公立高等普通學校, 1937), pp.201~202.

28) 슈판능(Spanning, 독어): 퍼다·팽팽히 하다·잡아 퍼다라는 어원을 갖고있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긴장(자극·흥분)을 시키다란 의미임.

29) 川喜田煉七郎, 建築工藝 I SEE ALL 第2卷 12號, 1932, p.1.



이러한 카와키타의 「구성교육」의 개념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보다 명확한 예로, 『각 학과목 교수방침』의 제4월 「교수방법」에서, 실제적인 방법으로써의 표현지도를 ①형태·선, ②구성상의 상태 및 명암, ③색채, ④구도로 나누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형태·선에 대해서는 「화면상의 형태, 선은 실제의 형태, 선을 회화적으로 처리하여 표현되는 물건이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은 화면구성상의 의미와 물체고유의 성질과 심성·질감·느낌 그 외의 내용을 표현하는 의미와 작가의 취미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깨우치게 하고, 화면구성상에서 최초로 주의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한다. 그러므로 입체구성에 있어서 특히 근본적 요소라면 합리적·역학적인 구성연구에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구성상의 상태 및 명암에 대해서는 「상태와 화면통일 상의 필수사정으로 하여 회화성을 얻는 중요한 요소이다. 명암은 중요한 화면구성의 요소에 있어서 양·깊이·중량·강함·실재감 등의 표현에 역할을 함과 동시에 화면통일 상의 상태를 쾌적하게 하는 효과가 되는 것이야 한다」

③색채에 대해서는 「색채와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더욱이 독자적인 감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생략)」

④구도는, 「화면구성상 구도는 최초로 연구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것의 지도에 있어서는 형태·선·명암 등의 콤포지션 연습과 간단한 슈판능 연습을 시켜서 균형을 이해시켜야 한다. 또한, 명화들 보다 구도의 묘미를 가르쳐야 한다.」<sup>30)</sup>

상기의 인용문에서 「구성교육」과 관계하고 있는 키워드는 「물체고유의 성질과 심성·질감·느낌」, 「합리적·역학적인 구성연구」, 「화면구성의 요소에서의 양·깊이·중량·강함·실재감 등의 표현」, 「색채와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감각을 표현」, 「형태·선·명암 등의 콤포지션 연습과 간단한 슈판능 연습」 등이다.

그리고, 주요 묘사방법을 다루는 방법으로써의 「도안」에는, 「㉑기본적인 콤포지치온 연습과 슈판능 연습을 시켜 변화와 통일을 이해시킴. ㉒자료는 실생활의 전분야에 상호 감흥이 깊은 것을 선택할 것. ㉓다종다양의 종류를 과제로 내주고, 한편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 ㉔그러므로 실생활에 대한 미적관심을 깊고, 장식미술의 태도를 키우게할 것」<sup>31)</sup>이라고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실제, 박휘락교수는 「슈판능」·「콤포지치온」·「감각」 등을 「구성교육」의 도입근거로써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최유련의 저서 『도화와 지도세목』에는 「슈판능」이란 용어가 10회이상, 「콤포지치온」·「감각」은 20회 이상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4학년 4주째의 「흰병과 검은병(白い瓶と黒い瓶)」의 조합연습으로써 「단계적으로 할 것인가? 비약적으로 할 것인가? (흰색·검정색·회색의 구성교육의 톤에 해당) 중부 콤포지치온을 만드는 것에 귀착」<sup>32)</sup>이란 기술과 5학년 7주째의 「가방과 필통(鞆と筆入)」의 관찰지도에 「형태의 변화(슈판능, 크기), 명암의 변화, 재료의 변화」<sup>33)</sup>등의 다수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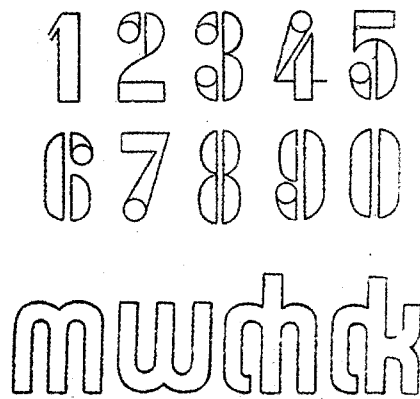
30) 石川頼彦, 앞의 책, pp.208~209.

31) 石川頼彦, 앞의 책, p.211.

32) 崔有練, 圖畫科指導細目(大邱:大邱師範學校付屬小學校,1938), 4學年の, p.3.

보다 특별한 수업으로는, 3학년 7주째의 「지나사변(支那事變=중일전쟁)」<sup>34)</sup>과 3학년 9월 4주째의 「리듬—음과 그림(リズム—音と繪)」<sup>35)</sup>등을 들 수 있다. 「지나사변」은 재료에 준비한 사진으로 「포토몽타주」를 하고, 「리듬(음과 그림)」의 경우는 「음악적 리듬을 형태·색채적 리듬으로 전환해서 리듬을 이해시킴」등을 시도하였다.

1938년 이전에 「구성교육」과 관련된 문헌 중 하나인 「전라북도교육회」가 발행한 『교과연구(1937)』중, 조한백(趙漢柏)의 「도화(圖畫)」의 페이지 259에 「바우하우스의 신 음표문자(バウハウスの新音標文字)」(그림 6)가 게재되어 있다.



字 文 標 音 新 の ス ウ ハ ウ ハ

그림 4. 바우하우스의 신 음표문자

즉, 조선시대에 바우하우스의 실제 예가 있는 현재상 유일한 문헌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학교미술의 소화 8년(1933) 4월호부터 소화 9년(1933) 3월호에 걸쳐서 발표된 각 월별 도화교재 해설중, 카미타 지로(鎌田次郎)선생과 야마모토 타카시(山本隆亮, 메이지소학교 교원)선생이 적은 5-6년 분 만을 소개」라 하여, 카와키타의 「구성교육」과 무관하게 여겨지지만 야마모토 타카시는 『학교미술(學校美術)』에서 카와키타 렌시치로를 일본도화교육계에 소개<sup>36)</sup>와 「도화와 구성교육(圖畫と構成教育)」<sup>37)</sup>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따라서 「전라북도교육회」가 발행한 『교과연구』는 「구성교육」과 관련된 문헌이라 판명된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았을 때, 박휘락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1938년보다 1년이 빠른 1937년에 「구성교육」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구성교육」의 도입은, 「제3차 조선교육령」시기의 특성이기보다 연속적인 일본 도화교육의 유입이라 할 수 있다.<sup>38)</sup>

또한, 1939년 이후의 문헌으로 『신교육령에 의한 학교·학급·교재의 경영(新教育令による學校・學級・教材の經營)』과 『조선 국민학교各科 교수요의(朝鮮國民學校各科教授要義)』가 있다. 이것들은 교수방침서에 해당된다.

33) 崔有練, 앞의 책, 5學年の, p.23.

34) 崔有練, 앞의 책, 3學年の, p.10.

35) 崔有練, 앞의 책, 3學年の, p.13.

36) 山本隆亮, “人物月旦:川喜田煉七郎”, 學校美術, 第七卷 第十一號

37) 山本隆亮, “圖畫と構成教育”, 學校美術, 第七卷 第十二號

38) 孫聆範, 앞의 책, p.1056.

『신교육령에 의한 학교·학급·교재의 경영』은 「도안교육·사상화(思想畫)교육·감상교육·구성교육·일본화(日本畫)교육」 등 각 지도자의 이념과 관계없이 아동의 미적도야에 문제를 기초로 하여야한다.」<sup>39)</sup>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신도화첩(新圖畫帖)의 편찬·탄생은 혼돈된 도화교육계의 좋은 지표이다」<sup>40)</sup>라고, 아동의 미적도야에 가장 적절하다고 「신도화첩」을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일서적의 수공과의 참고도서 리스트에, 카와키타 렌시치로와 다케이 카즈오 저서인 『구성교육대계(1934)』를 비롯해, 사카쿠라(坂倉贊治)의 저서 『도화교육』, 오오타케(大竹拙三)의 『형상도화교육의 신기구』, 나카니시(中西良男)의 『묘화(描畫)지도』, 미쯔토마(三苦正雄)의 『도화학습지도원리교육』 등이 있다. 즉, 조선에 있어서 「구성교육」은 다양한 도화교육의 하나였다.

『조선국민학교各科 교수요의』에는, 「형태·명암·질감 또는 그 이외의 연습방법(검은색 그림과 같은 특수표현, 수단방법이 슈파농의 수련과 같은 것)으로 행해져 온 경우와, 모티브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전체적 미를 아동이 직관으로 표현하고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의 전자는 구성교육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후자는 예술교육을 주로 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것들의 입장은 양자상호간의 위치를 부정 할 필요 없이, 일본황국신민으로써 조형문화의 기초적 훈련, 또는 미적정조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sup>41)</sup>라고 「구성교육」의 기능을 일제 식민지교육으로써 도입되었다.

## 6. 결론

한국에 현재 남아 있는 일본어로 기술한 1930년대의 소학교 교육의 지도방법을 기술한 『지도세목』 및 그의 「방침서」를 조사하고, 정리·분석을 통하여, 조선총독부의 감리 하에 있어서, 실제 소학교 교육에 일본의 「구성교육」을 경유로한 바우하우스 교육 방법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도입에는 사범학교가 지도적 입장에 있었고, 사범학교 부속 소학교의 커리큘럼안인 『지도세목』 및 그의 지도 요령인 「방침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자료, 특히 도화교육에 관계된 부분에, 용어 및 교육 내용에 있어서 바우하우스의 구성교육과 공통성이 있는 기술을 밝혔다. 이후 도입의 경유지인 당시의 일본의 바우하우스의 수용 태도와 비교, 또는 보다 상세한 「구성교육」의 내용을 비교, 나아가 왜 이러한 교육이 필요로 하였는가는 사회 배경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로 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박춘근 「바우하우스가 한국의 디자인 교육에 끼친 영향 (대학의 디자인 교육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박희락, 한국 미술교육 100년사, 예경출판, 1998.
- 최경숙 「디자인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중학교 중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8.
- 崔有練, 図工教育, 大邱師範學校付屬小學校, 1938.
- 崔有練, 圖畫科指導細目, 大邱師範學校付屬小學校, 1938.
- 大賀行雄, 日本におけるバウハウス理念の継承-近代建築思想形成期における川喜田煉七郎の言動を通して, 日本大學碩士學位論文, 1994.
- 總督府學務局學務課, 朝鮮學事例規(全), 朝鮮教育會, 1938.
- 岡久雄, 朝鮮教育行政,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44.
- 京城師範學校, 『京城師範學校總覽(2)』, 1929.
- 眞鍋一男 宮脇理, 『造形教育事典』, 建帛社, 1991.
- 大野謙一, 朝鮮教育問題管見, 朝鮮總督府 學務課 朝鮮教育會, 1936,
- 朝鮮總督府, 施政30年史, 1940.
- 高橋濱吉, 朝鮮學教管理法, 日韓書房, 1938.
- 大野謙一, 朝鮮教育問題管見, 朝鮮總督府 學務課 朝鮮教育會, 1936.
- 牧野喜久男, 昭和史事典, 毎日新聞社, 1980.
- 石川頼彦, 各學科目教授方針, 全州公立高等普通學校, 1937.  
· 川喜田煉七郎, 建築工藝 I SEE ALL 第2卷 12號, 1932.
- 山本隆亮, 人物月旦; 川喜田煉七郎, 學校美術, 第七卷 第十一號, 1932.
- 山本隆亮, 圖畫と構成教育, 學校美術, 第七卷 第十二號, 1932.
- 高橋濱吉, 新教育令に據る學校・學級・教材の經營, 京城女子師範學校, 1939.
- 公州女子師範學校・皇國教育研修會, 朝鮮國民學校各科教授要義, 公州女子師範學校, 1941.
- Akio Izutsu, THE BAUHAUS: A JAPANESE PERSPECTIVE And A profile of Hans and Florence Schust Knoll, Brian Harrison, 1992.

39) 高橋濱吉, “新教育令に據る學校・學級・教材の經營”(京城女子師範學校, 1939), p.309.

40) 高橋濱吉, 앞의 책, p.310.

41) 公州女子師範學校 皇國教育研修會, 朝鮮國民學校各科教授要義, (公州: 公州女子師範學校, 1941), p.317.